

# 이세보 유배시조의 특질과 함의\*

-『신도일록』 소재 시조를 중심으로-

김정화\*\*

|| 차례 ||

- I. 들어가는 말
- II. 『신도일록』의 서술 방식과 목적
- III. 『신도일록』 시조의 양상과 특질
- IV. 맺음말

## 【국문초록】

이세보는 가집 6종과 일록 1종을 남겼으며, 그가 창작한 시조 작품 수는 463수에 이른다. 한 작가가 여러 종의 가집을 남겼으며 또 거기에 수록된 작품 수도 실로 어마어마한 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유배시조에 관해서는 거의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이세보의 유배시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은 유배시조에 대한 관심의 부족과 그의 유배일기인 『신도일록』의 중요성에 대한 간과를 이유로 지적할 수 있다. 『신도일록』에는 이세보의 유배 행로 및 유배 기간 동안 그가 느끼고 생각한 것들이 담겨 있으며, 일록의 말미에는 시조 95수가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세보의 유배시조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신도일록』과 『신도일록』에 실린 시조를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선 『신도일록』의 서술 방식을 살펴보면, 신지도 도착 전까지는 날짜의 기록과 함께 유배 여정 및 견문, 감상, 심정 등이 복합적으로 드러나 있으나, 신지도 도착 후의 기록은 날짜의 기록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으며, 몇 가지 큰 사건의 기록과 함께 대부분은 이세보의 심정적 토로가 주를 이루고 있고 이는 노래로써 극대화되고 있다고 하겠다. 즉 『신도

\* 본 연구는 2015학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일록』은 유배 여정의 기록에 대한 의지도 있었으나, 그 외에는 사실의 기록보다는 심정의 토로가 더 주된 서술의 목적이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신도일록』1번부터 92번까지의 시조를 대상으로, 『신도일록』시조의 양상과 특질을 살펴보면, 첫째, 불특정 대상을 향한 자탄적 혼계를 읽을 수 있다. 이세보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혼계시조를 지었는데, 『신도일록』의 혼계시조에 보이는 어조는 답답하지만 슬프고 쓰라리다. 이러한 어조는 혼계시조의 대상이 타인만을 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해 준다. 이세보의 혼계시조는 타인을 향한 혼계를 빙자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탄적인 혼계이기 때문이다. 둘째, 유배로 인한 심정과 회포의 토로가 단연 두드러진다. 한탄하다가 절규하고, 절규하다가 비는 등, 할 수 있는 토로는 다 하며, 작자의 목소리 역시 심정적으로 매우 격양되어 있다. 특히 이러한 시조 상당수는 『신도일록』에만 집중적으로 실려 있다. 이세보는 『신도일록』과 『신도일록』시조를 통해 자신의 유배 생활에서의 회포를 가감 없이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셋째, 『신도일록』에 실린 연군시조는 매우 다양한 경로로 연군을 표출시키고 있다. 하지만 그 대상을 명확하게 언급이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세보 역시 여타 애정시조와 연군시조들을 분리하고 있음을 읽어낼 수 있다. 넷째, 유배의 고충을 적나라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다른 유배시조의 경우 유배의 고충이 이만큼 적나라하게 표현된 사례는 드물다. 막연한 서글픔이나 고달픔 등 일반화된 감정 토로를 보이는 작품이 대부분이지만, 이세보의 경우처럼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상황의 제시가 일반적이지는 않다.

『신도일록』시조를 대상으로 이세보 유배시조의 내용적 특질을 살펴면서 얻어낸 몇 가지 특징을 정리해 보더라도 그의 유배시조가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유배시조와는 비견될 수 없을 만큼 다각적이며, 구체적, 현실적이라는 평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이세보(Lee Sebo), 유배시조(sijo of exile), 『신도일록(Sindo diary(Sindoillok))』, 『풍아(Pung-A)』, 서술방식(the way of description), 특질(characteristics), 유배시조의 범주(Category of exile sijo)

## I. 들어가는 말

이세보는 가집 6종과 일록 1종을 남겼으며<sup>1)</sup>, 그가 창작한 시조 작품 수는 463수에 이른다. 진동혁은 그의 초창기 연구에서 이세보의 시조를 458수로 보았으나<sup>2)</sup>, (별, 을축)풍아가 발견<sup>3)</sup>되면서 새로운 시조 1수가 덧붙여져 459수로 다루어졌고, 또 그동안 제외되었던 『풍아(소)』의 시조 3수가 포함되면서 462수<sup>4)</sup>로, 이후 『주석 시조총람』이 발간되면서 『시가(단)』에서 빠진 1수가 덧붙여지면서 이세보의 시조는 총 463수임<sup>5)</sup>이 밝혀졌다. 진동혁의 선구자적인 연구 이래 이세보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지속되어 왔고, 가집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상당한 결과물을 축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세보의 유배시조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세보는 1860년 11월에서 1863년 12월까지 약 3년간 신지도 위리안치라는 유배 생활을 하였고, 그의 시조 작품은 이 시기에 상당수 지어졌다고 봄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세보 시조 연구에 있어서는 주로 현실비판시조와 애정시조 양 분야에만 집중되어 이루어졌으며, 유배시조에 관해서는 거의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유배문학으로서 유배가사에 대한 관심과 연구에 비해 유배시조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진한 편이다. 이세보의 유배시조

1) 가집으로는 『풍아(대)』, 『풍아(소)』, 『시가(단)』, 『풍아(별집)』, 『풍아(미제)』, 『(을축, 별)풍아』가 있고, 일록으로는 『신도일록』이 있다.

2) 진동혁, 「이세보의 유배시조 연구」, 논문집 15, 단국대학교, 1981.

3) 진동혁, 「새로 발굴된 이세보의 시조집 《別風雅》에 대하여」, 『김영배선생회갑기념논총』 김영배선생회갑기념논총간행위원회 편, 1991. p.916 참조.

4) 오종각, 「이세보 시조집의 편찬특징에 관한 재고」 『단국어문논집』 2집, 단국대학교 인문과학대학단국어문연구회, 1998.

5) 『역주 시조총람Ⅱ』, 진동혁 전집 제5권, 도서출판 하우, 2000. 참조.

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조선시대 유배시조에 대한 연구도 약진을 거듭해야 한다고 본다.

이세보의 유배시조 연구의 가장 큰 문제는 유배시조의 대상조차 확정되지 못했으며 어느 경우든 유배시조의 범주에 대한 근거와 판단은 매우 자의적다는 점이다. 진동혁은 이세보의 유배시조를 77(78)수<sup>6)</sup>로 한정했고, 박길남은 78수, 이재식은 150수로 보았는데, 어느 경우든 유배시조의 범주에 대한 근거와 판단은 매우 자의적이어서 많은 문제점<sup>7)</sup>을 지니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지금까지 이세보 유배시조에 대한 연구가 내용 분류를 넘어서고 못하거나 단편적인 언급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세보 유배시조에 대한 평가도 문제이다. 연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세보 시조에 대한 막연한 평가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세보의 유배시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은 유배시조에 대한 관심의 부족이 가장 큰 이유였을 것이다. 이에 대한 반성과 함께 필자는 『신도일록』의 중요성<sup>8)</sup>에 대한 간과를 더 큰 잘못으로 지적하고자

6) 진동혁, 『이세보의 유배시조 연구』 1981에서는 77수로 보았으나, 이후 『이세보 시조 연구』, 집문당, 1983. p163에서는 “탄산 갖치 놓흔 성덕 엇지 감히 잇즈오랴 마정방동다 흐기로 은혜를 갑홀손가 아마도 군신지우난 나 뿐인가”라는 시조를 충군(충성) 시조에 추가시킴으로써 유배시조를 78수로 보았다.

7) 박길남은 진동혁의 견해를 그대로 이어받아 78수로 보았고, 이재식은 처음에는 461수를 대상으로 하다가 이후 150수로 대상 범위를 줄였다. 박길남, 『이세보의 유배시조 연구』, 『한남어문학』 17집, 한남어문학회, 1992. 이재식, 『유배시조 범위제고』, 『겨레어문학』 21·22집,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회연구회, 1997. 참조 이후 오종각은 『신도일록』 시조(3수를 제외한 92수)와 기타 9수를 유배시조로 보아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오종각, 앞의 논문 참조.

8) 『신도일록』에 대한 논의는 진동혁이 『신도일록』의 내용을 소개한 이후 본격적으로 거론된 예는 거의 없다. 오종각이 이세보 시조집의 편찬특징을 살피면서 『신도일록』의 내용과 시조에 대해 간략히 언급한 바가 있으며, 최근 주목할 만한 연구로는 정우봉의 연구가 유일하다. 그는 『신도일록』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일기문학으로서의 위상과 의의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신도일록』의 구성과 표현에 대해 내

한다. 『신도일록』은 이세보가 신지도에서 유배 생활을 한 데 대한 일기 형식의 기록이다. 『신도일록』에는 이세보의 유배 행로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유배 기간 동안 그가 느끼고 생각한 것들이 담겨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신도일록』의 말미에 시조 95수가 수록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여러 종의 가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보는 『신도일록』의 말미에 시조를 수록하고 있으니, 이 시조야말로 이세보 유배시조의 근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세보의 유배시조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신도일록』과 『신도일록』에 실린 시조를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다.

본고는 『신도일록』의 서술 방식과 목적을 살핌과 동시에 이세보가 『신도일록』에 시조를 수록한 의도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또한 『신도일록』 시조를 중심으로 이세보 유배시조의 양상과 특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그간 이세보 시조에 대한 논의가 현실비판시조와 애정시조에 치우쳐진 데 대한 형평을 위한 보완이기도 하면서, 앞으로 이세보 시조의 특질을 새롭게 규명하는 데도 일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Ⅱ. 『신도일록』의 서술 방식과 목적

이세보가 편찬한 가집이 여러 권임에도 불구하고, 가집과는 성격을 달리 하는 『신도일록』 말미에 시조를 실고 있다는 점은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다. 또한 『신도일록』의 서술 방식을 살펴보면 보통의 일록과는 차이를 받

---

면 감정의 토로와 자기 독백적 어조, 과거 회상과 자전적 슬회, 한시와 국문시가의 활용으로 인한 산문과 운문의 유기적 결합, 비유와 인용의 효과적 운용 등을 특징으로 들었는데, 이 연구는 『신도일록』에 실린 시조에 대한 논의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오종각, 앞의 논문, 정우봉, 『이세보의 국문 유배일기 『薪島日錄』 연구』, 『고전문학연구』 41집, 한국고전문학회, 2012. 참조.

견할 수 있다. 『신도일록』은 유배지인 신지도 도착을 기점으로, 전후를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신지도 도착 전까지와 도착 후는 기록의 양으로 보면 비슷한데, 서술 방식에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우선 살펴볼 것은 날짜의 제시 방식인데, 목적지인 신지도 도착 전후가 달리 나타난다.

초칠일 평명의 길을 재날시 금부도스~9)  
 시흥현 류막의셔 즈니 그 잇흔날은 초팔일이라~  
 이 날 밤을 지내고 이튼날 장삿 섬중으로 드러 올신  
 이 날은 이십일일일너라  
 신지도가 저그로다~ 이 썩는 경신년 동 십일월 이십이일이라

초오일 안동으로부터 보내온 돈을 가지고 초칠일 평명 길을 떠나게 되는데, 초칠일부터 십일월 이십이일까지는 매일 날짜가 제시되고 있다.

신지도에 도착한 후부터는 양상이 달라진다. 『신도일록』에 나타나는 날짜의 기록은 신지도에 도착한 십일월 이십이일로 끊어진다. 이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 있기는 하나, 일별로 날짜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다. 구체적인 날짜가 제시된 날은 선달 그믐과 정월 십삼일<sup>10)</sup>이며, 그 외는 삼춘, 봄이 지나고 여름철이 또 이르렀다는 식으로, 계절과 시간의 흐름을 알리는 정도이다. 날짜가 제시된 선달 그믐과 정월 십삼일은 감회가 특별히 남달랐던 날이다. 집집이 떡을 치고 사람마다 술 취하고 등화(燈火)는 조요(照耀)하고 들리는 소리는 요란한데, 자신은 타향의 위이객(爲異客)으로 홀로 있음을 서글퍼 한다. 정월 십삼일은 이세보에게 매우 쓰라리며 잊을 수 없는 날이다. 가친(家親)의 위세(威勢)한 전부(傳訃)를 받고 원억

9) 초칠일 전에도 초이일과 초오일은 날짜가 기록되어 있다.

10) ‘어너덧 동지달리 지나리 둥근 달리 다시 이지러지고 셋달 그믐 다다르니~’, ‘정월 십삼일의 이르러 가친이 위세하신 전부가 이르니~’

지통(冤抑之痛)을 이기지 못해 비린 피를 폭류하고 혼절했다는 것과, 12월 23일 가친(家親)의 하세(下世)를 뒤늦게 듣고 영별하지도 못한 원통함, 불쌍함, 참혹함 등을 절절히 기록하고 있다. 이렇듯 신지도에 도착 후 특별히 날짜가 기록된 두 날은 그에게 매우 특별한 날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신지도 도착 전까지는 매일의 날짜를 기록하려 했으나, 신지도에 도착하고 나서부터는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는 날짜의 기록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날짜의 기록은 『신도일록』에 기록된 내용과 무관하지 않다. 유배가 결정되고 발행하여 도착지인 신지도에 이르기까지는 일별로 유배행의 경로가 상세히 드러나 있다. 언제 어디를 거쳐 어디에 갔는지를 기록하는 데는 일기의 형식을 비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듯 유배 경로가 상세히 기록되면서, 경유지에서의 견문, 감상, 회포 등도 복합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길리 안양으로 지나가니 이 짜흔 나 심장헌 곳이라~ 허물며 바다 맞껏히  
 썩긴 신희요 흥날 가오세 외로운 손이라 봉우들과 노복들리 길을 막으며 손을  
 잡고 가로되~

유배의 경로를 상세히 밝힘과 함께, 경유지에서의 인연에 대해서도 빠지지 않고 기록하고 있다. 7일에 출발하여 8일에는 안양을 지나는데, 이곳은 이세보의 외가가 있는 곳으로, 자신이 어렸을 때에 생장했던 곳이다. 자신이 놀던 곳을 유배객이 되어 지나가게 되니, 감회를 누르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압길은 어디며뇨 은진현을 지나가면 여산부가 전나도 초경이로구나 십년  
 구도흥여 삼네역의 이르러 잘식 토혈제증이 심분 위중흥여 형각이 업쓰니~

이 부분에서는 자신의 병으로 인해 더 지치고 힘들어진 유배 길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십전구도(十顛九倒)하여 삼례역에 이르렀지만, 자면서 토혈(吐血)제증(諸症)이 매우 위중하여 형각(形骸)이 없었던 위태로운 상황을 실감 있게 기술하고 있다. 매일 전진하는 유배의 경로와 함께 경유지에서의 감회를 서술하면서, 병마에 시달리는 자신의 초라하고 암울한 처지까지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금성산이란 피가 잇쓰니 그 피이 요도하고 명녀하여 한 고을를 듯녇는데  
운이 영농하여 또한 호람 명산이요 성곽과 인물이 변성하고 누디와 풍경도  
절승하다 쏘 이 날리 장날이라 장스드른 스면으로 피야들고 물화는 피처럼  
싹엿쓰니 빗나고~

십구일 새벽에 길을 떠나 나주에서 금성산을 바라보며, 명산의 아름다움과 그곳의 풍경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 또한 장날에 장사치들이 모여드는 모습과 물화가 산처럼 쌓여 사고 파는 모습에서 마치 서울 종로를 지나는 것과 같다고 당시의 견문과 감상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감정이 격해지면 한시로써 자신의 감정을 담아내고 있는데, 신도일록 전반부에는 절구 2수와 읍시 1수가 기록되어 있다.

한 절구를 지엿쓰니 그 글의 흥엿쓰되~ (12월 8일),

한 절구를 지어 가로되~ (12월 17일)

한 읍시를 지어 가로되~ (12월 20일)

8일과 17일에는 절구를 지었는데, 우선 8일에는 안양에서 봉우 및 노복들과 이별하며 면면이 서로 보아 눈물로 작별한 후, 그날 밤 화성 남문 밖 주막에 들어 자는데 슬픔을 이기지 못해 한 절구를 지었다고 했다. 또한

17일에 절구를 지은 것은 15일 병으로 인해 잠시나마 조리를 하게 되어 부모와 동생을 만났으나, 다시 이별한 후 고개를 넘기 전 지은 것이다. 이 고개를 넘으면 군친 계신 곳이 더욱 묘연할 것이라는 데서 험난한 자신의 유배 길과 외로운 회포를 이기지 못한 감회가 절구에 잘 드러나 있다. 20일에는 강진현으로 향하면서 이렇게 멀고 험한 길을 오늘날 무슨 연고로 왔는지 낙일(落日)을 의지하여 북두성을 바라보고 대궐을 생각하니 외로운 정성(精誠)이 차마 잊기 어렵다며 읊시를 지었고, 읊기를 마치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고 한다.

이상과 같이, 신지도에 도착하기까지는 날짜의 제시와 함께 유배의 경로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으며, 경유지를 지날 때마다 견문과 감상이 잘 드러나 있다. 특히 자신과 유관한 곳일 경우 회상과 함께 지금의 처지가 대조되어 유배객으로서의 심회가 잘 표출되어 있다고 하겠다.

한편 신지도에 도착한 이후로는 사소한 일정이나 일과, 일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가 겪은 일 중 특기할 만한 일을 골라서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도스와 본관과 밧 진장이 마당 우의 와 셔고 슈빅 진돌노 향여금 스면으로 환위하고 일곱 동너 스는 빅성드리 가시를 질머지고 와 텃토와 구산갓치 싣호니 길을 막고 뵈까지 가득향여~ 인향여 자물쇠로 굿게 즈무니 그 효상은 더욱 참아 억제향기 어렵쪄다

신지도 도착 후 정신을 수습하지 못한 중에 도사(都事)와 본관(本官) 진장(鎭將) 등이 마당에 와 셔고, 수백 진졸(鎭卒)들이 둘러싸며 백성들이 가시를 짊어지고 와서 요란한 모양새를 내는 상황이라든가, 때가 궁동(窮冬)이라 땅이 얼어 있는데 도끼로 파고 쇠꼬챙이로 뚫으니 그 소리에 담이

떨리고 기운이 죽어 차마 듣지 못할 지경이며, 차마 앞에 뻑뻑이 형극(荊棘)을 에우고 울 틈으로 작은 문을 내고 문 위에 작은 구멍 하나를 내어 음식을 통하게 한 것이라든가, 자물쇠로 굳게 잠그니 그 효상(爻象)이 더욱 차마 억제하기 어렵다는 등, 위리안치 당시의 정경과 심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서울서 써날 썩의 소위 겸인이라 호고 짜라 닉닷기의~  
호로는 한 슝이 잇서 위리틈을 뚫츠셔 문안호거날~

위는 자신이 데려온 겸인의 일과 옥동 김판서댁 겸인 김시명이란 사람에 대한 일을 기록한 부분이다. 정작 오는 길에 보니 자기 이육만 챙기고, 도중(島中)에 들어와서는 일절 곁에 있지도 않고 도인(島人)들과 어울려 술 먹고 소일하고 나쁜 짓만 한다며, 이제 도중(島中)에서 구호해줄 사람도 없는 어렵고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며 한탄하고 있다. 김시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날짜는 없지만 ‘호로는’으로 시작하여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새로우면서도 중요한 사건임을 환기시켜 주고 있다. 먼저 찾아와 인사를 하길래 좋은 말로 대답하고 추호도 간섭한 것은 없었는데, 아전의 전하는 말을 들으니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함은 물론이고, 있을 수 없는 추악한 짓을 하고 다닌다며, 내용도 길지만 상당히 격한 어조를 드러낸다. 더구나 ‘이갓흔 말을 기록호는 거시 쏘한 장황호고 구구호되’라고 장황하고 길게 서술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밝힐 정도이니, 이 일이 이세보에게는 상당히 큰 사건으로 여겨졌던 듯하다. 이 후 기록된 사건은 설달 그믐의 일과 정월 십삼일의 일인데, 앞에서 살핀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이렇듯 신지도에 도착한 호로는 매일의 일보다는 중요하고 큰 사건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록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도착 전의 서술에 비해 신지도에 도착한 후의 서술에서는 위의 몇 사건을 제외하고는 있었던 일 자체보다는 억제하기 어려운 자신의 감정 및 회포에 대한 토로가 서술 전면에서 배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고운성의게 임의 주인이라 흐는고로 여간 괴명과 두어말 속미를 어더서  
아죽은 지너니 이 이른번 심부러스이로다~

도중인심 연력하니 무법무식 태심하다 예의를 돈몰하니 염치를 엇지 알며~  
삼춘이 향난하니 빅해징받이라 촉물상심은 더욱 견디여 억제하기 어렵고~

이세보는 처음 대한 신지도에 대해 ‘악(惡)한 봉만(峯巒)과 추(醜)한 석각(石角)’이 전후에 묶여 섰고, 좁고 좁은 섬 동구(洞口)는 범의 입 형상 같고 검수(劍水)와 도산(刀山)이 염라귀관(閻羅鬼關)을 열었다고 적소(謫所)의 첫인상을 펼쳤다. 주인을 정하였으나 앞으로 살기가 아득하며 약을 구할 곳도 없다고 하소연한다. 도중 인심에 대해서도 무법무식(無法無識) 태심(太甚)이오, 예의, 염치, 효제, 충신을 알 리가 없고, 자신에 대해 뒷말을 하고 빈천한 사람만도 못한 신세가 되어 참민할 뿐이라며 탄식한다. 시간이 흘러 봄이 되었지만 허두잡이 사람이요 참선하는 노승과 같은 신세로, 어찌하여 오기는 잊고 돌아갈 줄 모르나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을 절실히 표출하고 있다.

사실상 이세보는 『신도일록』의 전체에 걸쳐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별로 날짜를 밝히고 있던 부분에서도 회포에 대한 서술의 비중이 적었던 것은 아니다. 작자가 겪은 견문과 사건이 『신도일록』 전반부에는 어느 정도 기록이 되고 있다. 하지만 신지도에 도착 후부터는 몇 사건에 대한 기록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회포와 심정에 대한 토로가 전면에서 지배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다.

특히 신지도 도착 후에는 ‘노래<sup>11)</sup>’에 대한 기록이 상당량을 차지한다. 총 4수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역시 『신도일록』 후반의 기록이 작자의 심정 토로에 경도되어 있음을 방증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혀여 한 노리를 지어 가로디 손이 잇셔 너게 읍히고 무려 가로디~ 창낭  
가 한 곡도가 심이 맑고 쏘 한가하니 날노 더부러 어부스나 화답하세  
너 이말를 듯고 기리 탄식하니 나 지기하느니 아니면 엇지 나를 아려 보  
리요~

신지도를 앞에 두고 노래를 지은 것인데, 앞의 노래는 이세보에 대한 손(客)의 노래이며, 뒤는 손의 노래에 대해 이세보가 화답한 형식으로 되어 있다. 손은 이세보의 심정을 그대로 대변해 주고 있어, 이세보는 그를 ‘知己’라 하며 화답에서 자신의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지금의 처지에 대한 극한 슬픔을 토로하고 있다.

인혀여 노리 한 곡도를 지어 가로디 멀리 별리하미여 서로 싱각하기를 괴  
로이 하니~  
쏘 노리혀여 가로디 오히라 한번 노리하미여 텃지는 저물고져 하고~

위의 노래는 병은 고향(膏肓)이 침노(侵擄)하고 근심은 떨기처럼 모여 누웠다 일어나고 다시 앉아 느끼는 회포가 갈수록 억제하기 어려워 짓는다고 했다. 노래의 내용은 임금을 그리워하여 슬픔을 이기기 어려우며, 병들

---

11) 여기서 말하는 ‘노래’는 우리 말 노래를 의미한다. 한시의 경우 ‘절구’, ‘율시’라고 밝히고 있으며, 시의 내용은 국문으로 기록하고 있다. 『신도일록』 전반부에 절구가 2수(12월 8일과 17일), 율시가 1수(12월 20일) 기록되어 있고, 후반부에는 노래 4수가 기록되어 있다.

어도 의원을 보지도 못하고 살 수도 없는 소회를 호소할 데도 없으니, 하늘이 감동하여 해배되기를 기원한다는 것이다. 억울하고 답답하나 다소 담담했던 앞의 노래와는 달리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강하게 호소하고 있다. 다음 노래는 유배를 당해 불효죄인이 되고 말았으니 하늘을 부르짖고 땅을 두드려 통곡하는 외에 무엇을 더하겠느냐고 하며 은혜를 베풀어 고향으로 돌려보내 주면 쌍친을 섬겨 백세를 누리겠다며 이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하는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서술하고 있다.

삽입된 ‘노래’는 상당히 긴 부분을 차지한다. 회포를 억제하기 어려워 노래를 짓는다고 하면서, ‘노래’를 통해 자신의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며 해배를 기원하고 있다. 뒤로 갈수록 화자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으며 매우 처절하기까지 하다. 여기서 말하는 노래는 형식이 완전하지 않아 어디까지가 ‘노래’인지도 불분명한 점이 있기는 하다. 굳이 노래가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자신의 심정과 회포, 염원 등을 서술해 왔지만, 이렇듯 상당한 길이를 차지하는 노래 4수를 제시한 것은 자신의 절박함을 최대한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였다고 볼 수 있다<sup>12)</sup>.

이상으로 보아, 『신도일록』에서 신지도 도착 전까지는 날짜의 기록과 함께 유배 여정 및 견문, 감상, 심정 등이 복합적으로 드러나 있으나, 신지도 도착 후의 기록은 날짜의 기록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으며, 몇 가지 큰 사건

12) 『신도일록』 속의 ‘노래’의 효용에 대한 정우봉의 언급은 주목할 만하다. “『신도일록』에서 노래의 삽입은 문맥 속에서 필연적 계기에 의해 화자의 정서와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장치였다. ~ ‘노래’라는 서정 장르의 선택은 작품 전체의 유기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내면적 정서 표출을 중시하고 주관화, 서정화의 경향을 짚고 있는 일기문학으로서의 『신도일록』의 독특한 성격을 보다 강화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요컨대 『신도일록』 내의 시가 작품은 작품 내의 유기적 구성 요소의 하나로서, 내적 감정의 절실한 토로, 자기 독백의 진정성 있는 표출을 강화하는 기능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정우봉, 앞의 논문, p.431.

의 기록과 함께 대부분은 이세보의 심정적 토로가 주를 이루고 있고 이는 노래로써 극대화되고 있다고 하겠다. 즉 『신도일록』은 유배 여정의 기록에 대한 의지도 있었으나, 그 외에는 사실의 기록보다는 심정의 토로가 더 주된 서술의 목적이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Ⅲ. 『신도일록』 시조의 양상과 특징

『신도일록』에 실린 시조는 총 95수이다. 이 중에서 맨 마지막 93번부터 95번까지는 유배 생활이 끝난 뒤 지었으며, 자연스럽게 앞의 시조와 수록 시기도 달랐다고 봄이 일반적이다.<sup>13)</sup> 본고에서는 『신도일록』1번부터 92번까지의 시조를 대상으로 이세보 유배시조의 양상과 특징을 논하기로 한다.

#### 1. 불특정 대상을 향한 자탄적 훈계

『신도일록』 시조에서 훈계시조는 총 23수<sup>14)</sup>로, 여타 시조에 비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지금까지 훈계시조는 비록 『신도일록』에 실려 있다 하더라도, 이세보의 유배시조를 다루면서는 논외가 되어 왔다. 하지만 이세보의 유배시조가 지니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신도일록』에 실린 훈계시조를 제외해서는 안 된다. 훈계시조와 같이 유배 생활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세보가 이를 『신도일록』에 실어 둔 이유를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13) 이에 관한 논의는 정홍모, 『조선후기 사대부 시조의 세계인식』, 월인, 2001. pp.187-190, 오종각, 앞의 논문, pp.151-152를 참조할 수 있다.

14) 신1과 신8, 신17, 신61~80번까지이다. 그런데 오종각은 『신도일록』 시조 중 교훈을 표명한 시조를 22수로 정리하고 있다. 오종각, 앞의 논문, p.152참조.

이세보는 왜 유배기에 훈계시조를 썼던 것이며, 이를 왜 굳이 『신도일록』에 넣었던 것일까. 이세보가 훈계시조를 썼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사대부로서 시조 창작에 손을 댈 이상 시조의 본류에서 일탈할 수 없었고, 당연한 생각에서 적지 않은 수의 충효의 시조를 짓게 되었을 것<sup>15)</sup>이라는 말도 타당하다. 하지만 훈계시조의 창작과 기록을 비단 이러한 시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

무궁헌 건곤이요 변치 안는 일월이라  
휴슈 왕상 만물이요 한셔온랑 스시로  
다 그중의 어렵끼는 성인 도덕 (신1, 풍대144)

인간만물중의 스텘이 웃뜸이라  
오름을 다 모르고 의리를 못 밝키면 아마도  
츄싱후싱의 이름두기 어려 (신8, 풍대261)

성인 도덕, 오름, 봉우지교를 말하는데, 성현서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 식상할 정도로 평이한 시조라 할 수 있다. 유교 경전을 생명과도 같이 했던 데서 나온 본능적인 표출이었을 수도 있고, 유배 생활 가운데서도 양반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다.

수구여병안위세요 스군이덩즈유여를 슈신못헌  
제가 업고 제가 못헌 치국  
업다 아마도 츄효겸전은 인성지 웃뜸인가 (신17, 풍대150)

이 시조 역시 경전의 구절을 인용, 나열하고 있다. ‘守口如瓶安危世, 事君以正自有餘, 修身齊家治國, 忠孝兼全’을 늘어 놓아 언뜻 보면 평범한 유교 경전의 진리를 드러내는 것으로 치부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시조는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것일 가능성이 짙다. 특히 ‘수구여병(守口如瓶)’은

15) 박노준, 『이세보시조의 ‘분’의식과 정서표출의 두 국면』, 『동양학』 20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90. p.101

이세보의 다른 시조에도 등장하는데, 시조를 자세히 음미해 보면 경험에서 나온 자신의 삶에 대한 탄식임을 짐작케 한다.

너 나를 해여 보니 명년이 삼십이라 수구여병 왜 모르고 천리거적 무삼  
일고 아마도 충언이역이나 이어헝인가 (신6, 풍대179)

이 시조는 수구여병(守口如瓶)을 몰라 천리거적(千里居謫) 온 자신의 유배행을 한탄하는 시조이다. 명년 삼십의 자신이 유배를 오게 된 이유가 바로 수구여병(守口如瓶)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탄식하고 있다. 또한 자신이 수구여병(守口如瓶)하지 않고 벨은 말은 충언이었으며, 충언은 귀에는 거슬리나 행동에는 이로울 것이라 맺고 있다. 이 시조로 볼 때, 신17번 시조에서 수구위병안위세(守口如瓶安危世)라 한 것은 자신의 삶이 그렇게 되지 못한 데 대한 깨달음인 동시에 자탄이며, 또한 사실상은 세태를 비꼬며 자신의 위태로운 신세를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도망을 치고 보니 걸니느니 못식로다 빅일의 걸닌 식을 낫낫치 잡지 마라  
그 중의 잉무 공작은 후일 보게 (신62, 풍대247)

인간 성의 몇가진고 금슈도 일반이라 저 식야 충복은 알고 나망은 왜 모른  
고 아마도 스흘의 식육은 곱난이 쉬워 (신63, 풍대248)

신62번 시조는 도망을 치는 사람에게 대낮에 걸린 새를 전부 잡지는 말라는 당부이고, 신63번 시조는 배만 채우기에 급급해 나망에 걸린 어리석은 새를 탓하면서, 결국은 곱난이 쉬운 사람의 식육을 경계하는 훈계시조이다. 표면적으로는 비유를 사용하여 인간의 과욕과 어리석음을 경계하는 평범한 시조로 보이는데, 이 시조 역시 자신의 삶에 대한 반추임이 다음 시조에서 드러난다.

불충불효 되었스니 심전스후 어이허리 다일 황천허의 무면비선왕을 잊지  
타 나는 식가 빅일의 나망을 몰나 (신11, 풍대183)

이 시조는 불충불효가 된 자신이 선왕을 별 면목도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다고 탄식하는 시조이다. 여기서 나는 새는 작자 자신으로, 백일에 나망을 몰라 그물에 걸린 신62번 시조의 앵무 공작에 다름 아니다. 앵무와 공작은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새로, 백일에 죄도 없이 무분별하게 잡혀서는 안 되는 대상이다. 나망에 걸릴 대상이 아닌데 인간의 욕심에 의해 잡힐 수도 있음이니, 죄도 없는 자신이 소인배들의 행위에 걸려들었음을 비유하고 있다고 하겠다. 인간도 새와 같아 충족(充腹)만 알고 그물에 걸릴 줄 모르듯 자신이 바로 그러했던 것이고, 특히 사람의 식욕이 광란(癡亂)이 쉽다는 것은 자신에게 들이닥칠 화를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려 결국 화를 입고 말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충효가 일반이라 공명을 알나거든 의리의 뜻을 두어 누명의 범치마라 아마  
도 영총방변의 욱등티를 (신70, 풍대255)

충효를 하되, 공명을 하려거든 의리에 뜻을 두고 누명(陋名)을 범하지 말라고 훈계하고 있는 시조이다. 역시 충효를 강조하는 평범한 시조인 듯 보이나, 뒤의 내용을 살펴보면 작자의 경험에 의한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는 시조임을 알 수 있다. 공명하려거든 의리에 뜻을 두면서도, 임금의 총애를 받는 신하의 옆에는 항상 욱(辱)이 등대(等待)하고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세보의 삶과 연결시켜 본다면, 충효로 으름을 삼았고, 공명을 하면서도 의리에 뜻을 두어 누명을 범치 않으려 했으나, ‘영총방변(榮寵傍邊) 욱등티(辱等待)’를 경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

국 유배까지 오게 되었다는 의미를 읽어 낼 수 있다.

『신도일록』에 있는 이세보의 훈계시조는 유교 덕목을 나열하는 피상적인 훈계시조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조는 작자의 경험과 유관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세보의 훈계시조에 대해 ‘제도와 교훈을 위한 관념의 시로 일관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 있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지 않으며, 分으로 분장된 충효사상을 이 시조들에서 관념화<sup>16)</sup>하고 있다는 평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신도일록』에 실린 훈계시조는 1, 8, 13번 시조를 제외하면 61-80번까지 한꺼번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이세보가 유배시기 동안 지은 훈계시조에 대해 어떠한 의도와 애정을 지니고 있었음을 짐작케 해 준다. 이세보가 자신의 경험과 유관한 내용으로 훈계시조를 지었다는 것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후회와 반성, 탄식을 읽어낼 수 있다. 『신도일록』의 훈계시조에 보이는 어조는 답답하지만 슬프고 쓰라리다. 이러한 어조는 훈계시조의 대상이 타인만을 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해 준다. 이세보의 훈계시조는 타인을 향한 훈계를 빙자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탄적인 훈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훈계시조는 일차적으로 자신에게 던지는 탄식 내지는 위로의 말이며, 또한 세상을 향한 훈계의 목소리를 위장했지만 그것은 결국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일 수도 있다. 즉 이세보 시조에 보이는 훈계는 그 대상을 의도적으로 정해두지 않았던 것이다. 겉으로는 타인을 향한 훈계이지만, 속으로는 자신을 향한 반성, 탄식, 위로이며, 또 세상

16) 박노준이 말하는 ‘분’의 표출은 비단 경계시조(훈계)만이 아니다. 그가 말하는 분 시조는 충효는 물론이고 농사시조, 나아가 임금과 부모형제를 그리워하는 시조, 사회시조(현실비판시조) 등을 포괄하고 있다. 또한 박노준은 사회시조를 경계시조 ‘戒官詩’ 곧 어떤 정당한 행위를 권장하여 정당치 못한 행위를 미리 막자는 이도에서 나온-라 명명하고 있어서, 본고에서 말하는 훈계시조와는 차이가 있다. 박노준, 앞의 논문, p.109참조.

을 향해서는 소극적이거나 자신의 결백을 알리는 것이 아니었을까<sup>17)</sup>.

## 2. 유배로 인한 심정과 회포의 토로

『신도일록』 시조의 단연 두드러지는 특징은 작자의 심정과 회포가 절실하게 드러나 있다는 점이다. 심정과 회포는 개인적인 것이어서 어떻게 표현해 내느냐는 순전히 작자의 개성과 의도에 달려 있다. 훈계시조를 제외하면 거의 전 시조에 심정과 회포가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는 유배 생활을 구체적으로 읊지 않고서, 단지 심정과 회포의 토로만 내뱉는 시조도 상당수에 이른다. 유배 생활을 바탕으로 한 시조이기 때문에 심정과 회포가 드러남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는 있을 것이지만, 이세보 시조의 경우 심정과 회포의 토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집중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남풍의 가는 구름 한양 천리 쉬우리라 고신 눈물 썩다가 구문창합 썩려주  
렴 언제나 우로를 입스와 환고향을 (신27, 풍대169)

붓을 잡고 샹셔 쓰니 이쁜 말삼 어딤 가고 눈물리 압홀 서며 한숨이 뒤짜른  
다 아마도 텃눈지경은 이러한가 (신35, 풍대208)

신27번 시조는 연군을 드러낸 시조이고, 신35번 시조는 부모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 시조이다. 눈물은 작자의 심정을 단적으로 드러내는데 아주 효과적인 단어로, 눈물 속에는 유배 생활을 하는 작자의 고충과 함께, 말로 다할 수 없는 후회와 안타까움 등이 포괄적으로 담겨 있다. ‘고신 눈물’을

17) 『신도일록』에 실린 훈계시조와 이세보의 현실비판시조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 현실 비판시조는 사회, 정치적인 폐해를 지적하고 관리들의 불합리함을 비난하는 시조라면, 훈계시조는 인생을 살아가는 유교 도덕과 현명한 진리의 터득을 강조하는 시조이다.

싸다가 뿌려 달라는 것에서는 자신의 심정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한껏 드러나 있고, ‘눈물이 압흘 서며 한숨이 뒤싸른다’에서는 눈물이 한숨과 어우러져 작자의 괴로움을 한층 더 고조시켜 드러내 주고 있다.

슬푸다 너일이어 무엇하라 여괴왔누 천스만량 석은 간장 부양턴지 할 썬이라  
엇지타 장스의 손이 되어 피눈물을 (신82)

타향의 싱일 되니 부모 동싱 그리웨라 밥상의 듯는 눈물 점점이 피가 된다  
언제나 무궁헌 회포를 부모 전의 (신84)

한편 신82번과 신84번 시조는 다른 가집에는 없고 『신도일록』에만 보이는 시조이다. 앞에서의 눈물이 여기서는 피눈물로 격화되어 있다. 간장은 썬을대로 썬었고, 하늘을 보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유배객의 신세이니 피눈물을 흘린다는 것이며, 또한 유배지에서 생일을 맞고 보니 부모 동생이 그리워서 눈물 한점 한점이 피가 된다고 하면서 앞의 시조보다 훨씬 격정적으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히도 가고 봄도 가고 삼하가 쏘 지너니 턱우느니 간장이요 쉬이느니 한숨  
이라 엇지타 썬결 세상의 나 홀노 지리하다 (신18)

갓득의 먼 고향을 장마 지니 어이 흐리 묘연하다 부모 동싱 소식 몰나 오작  
헐가 지금의 싱부득 스부득하니 가삼 답답 (신50)

위 시조들은 『신도일록』에만 보이는 시조들로, 현재 상황에서 자신이 느끼는 정서가 어떠한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신18번에서는 홀로 지리함, 신50번에서는 살지도 죽지도 못해 가슴이 답답함 등, 작자의 심정이 한 단어로 귀결되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시조에 따라 드러나는 구체적인 유배 생활의 양상은 약간씩 다르나, 결국 작자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지

리’, ‘답답’ 등의 심정적 토로이다.

궁하면 흐날이요 병드러 부모라 하니 궁하고 병든 명을 창턴의 비나이다  
언제나 명턴이 감동흐스 심환고토 (신88)

호싱지덕 흐날님께 익익이 비나이다 고신의 일누잔명 우로의 슬거지이다  
아마도 비왕티릭는 흐날리신가 (신89)

신88번과 신89번은 『신도일록』에만 있는 시조이다. 신10번 시조에서 ‘부루느니 창턴이라’는 신88번 시조에 와서는 ‘창턴의 비나이다’로, 신89번에 와서는 ‘흐날님께 익익이 비나이다’가 된다. 하늘에 부르짖다가 결국은 하늘에 빌게 되고 그것도 애애이 빌게 된다. 이 시조들은 유배 상황으로 인해 자신이 얼마나 고층 속에서 애간장을 태우는지를 드러내면서 해배(환고향)를 기원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 애절한 심정의 직접적인 토로는 이세보 시조의 큰 특징이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러한 감정 토로가 『신도일록』에만 단독으로 실린 시조들에 훨씬 더 집중적으로 보인다는 사실이다. 『신도일록』에만 보이는 시조는 18, 43, 45, 50번과 81~90번시조로 모두 13수<sup>18)</sup>인데, 이 시조들의 공통점은 모두 격정적인 감정 토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81~90번까지가 한데 묶여 있다는 사실도 눈여겨 볼만하다. 『신도일록』의 시조 배열은 『풍아(대)』에 비해 소재, 주제별로 일관된 구성을 보이지는 않지만, 62번 시조부터 80번까지는 훈계시조가 집중적으로 배치됨을 보았다. 그런데 81번 시조부터 90번 시조까지는 유배 생활의 여러 면모를

18) 『신도일록』 시조와 『풍아(대)』 시조를 비교해 보면, 『신도일록』의 시조 16수가 『풍아(대)』에 빠져 있다. 이 중 13수는 『신도일록』에만 보이는 시조이고, 나머지 3수 중 신2번 시조는 별1번에, 신87번 시조는 별222번에 실려 있으며, 신14번 시조는 단23번 및 별27번에 실려 있다.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 격정적인 감정 토로를 보이고 있다는 점으로 보아, 작자는 이 시조들을 통해 유배 생활 동안의 자신의 심정을 가감 없이 토로하고자 했음이 아닌가 짐작할 수 있다.

심정을 토로하는 시조들을 보면, 심정적 술회의 어조는 격하며, 작자의 목소리 역시 심정적으로 매우 격앙되어 있다. 유배로 인한 고통의 구체적인 진술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심정적 술회가 더 지배적이다. 대체적으로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암울한 분위기를 풍기며, 자신의 심회를 그대로 시조로서 승화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시조 상당수가 다른 가집에는 실리지 않고 『신도일록』에 집중적으로 실려 있는 것은 이세보가 『풍아(대)』를 편집할 당시에는 자신의 대부분의 시조를 『풍아(대)』에 실으면서도 유배 생활로 인한 참담한 심정을 격하게 펼친 이 시조들에 대해서는 『신도일록』에만 남겨두고 싶었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신도일록』은 일기의 형식을 빌리기는 했으나, 사건의 기록보다는 감정적 서술이 주를 이룸을 보았다. 특히나 후반에 와서는 그러한 경향이 전면에 드러났었는데, 『신도일록』 말미에 시조를 실으면서도, 유배 생활로 인해 유배기에 느꼈던 자신의 심정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따라서 이러한 시조를 집중적으로 실게 되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세보는 『신도일록』과 『신도일록』시조를 통해 자신의 유배 생활에서의 회포를 가감 없이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 3. 연군 의식의 다양한 표출

유배시조에서 단연 두드러지는 것은 연군 의식의 표출이다. 연군 의식은 대부분의 유배시조에 등장하게 된다. 이세보의 유배시조에도 예외는 아니지만, 이세보의 시조에 보이는 연군 의식은 매우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양이 얼마완디 소식을 돈년헌고 일도강남 구위직이 미의복두 망경화를  
엇지타 세상의 물도 만코 궤도 만어 (신24, 풍대162)

위 시조들은 한양과 임금을 같은 선상에 놓고 있다. 한양은 임금이 계신 곳으로, 한양 소식은 곧 임금에 대한 소식이고, 이를 접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임금에 대한 그리움이 된다.

오월 보름 되엿스니 순원성모 탄신일세 세료전일문안회라 고신누황빅감싱  
을 아마도 금일 빅운향의 선왕신 만어 (신49, 풍대193)

위 시조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연군 의식을 표현한 작품이다. 유배지에서 순조 임금의 비였던 순원황후(1789-1857)의 생신을 맞아, 예전에 문안하던 때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며 백가지 느낌이 생긴다고 한다. 오늘 선왕의 신하가 많을 것이라는 데서, 그 자리에 응당 함께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여기서는 당대 임금이었던 철종에 대한 그리움이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는 않으나, 순원황후와 선왕을 언급함으로써 연군 의식을 드러내었다고 볼 수 있다.

타향의 병이 드니 의약을 누라 알니 고원동망 천니외에 흐일증념 힘노란을

아마도 의약이 불여성상우로 (신9, 풍대181)

일등화스 손을 비러 가련헌 너 형상을 분명이 그려 너여 구문창합 전하며  
는 아마도 은혜로 노으시련이 (신28, 풍대170)

위 시조는 임금의 은혜를 바라는 작품들이다. 유배지에서 자신의 고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병에 있어서는 의약이 성상의 우로만 같지 못하다고 했고, 나의 가련한 형상을 그려 궁궐에 갖다 놓기만 하면 임금이 은혜로 나를 놓아주실 것이라 했다. 임금의 은혜를 바라는 마음은 단순히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만이 아니라, 임금에게 사랑받고 싶고 또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연군 의식에 뿌리하고 있음을 시조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다.

턴작얼은 유가위오 즈작얼은 불가활를 불충 무상 이너몸이 호쇼혈 곳이  
업다 엇지타 초옥의 빈디 벼룩은 이다 만어 (신12, 풍대184)

덕명던지 밝은날리 너방의는 안비천다 너불충을 심각하면 밝은날를 원망  
하라 엇지타 세상의 지되히리 적어 (신19, 풍대185)

위 시조들에서 연군은 자신의 불충에 대한 탄식으로 드러나고 있다. 여기서의 불충은 임금을 가까이 모시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불충을 의미하고 있지, 자신이 임금에 대해 다른 어떤 잘못을 저지른데 대한 불충은 아니다. 불충을 자탄하는 것은 달리 말해 임금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것이고, 이 역시 연군의 또 다른 표현이라 할 것이다.

#### 4. 유배 고충의 적나라한 진술

이세보는 유배지에서의 생활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고충, 고생’을 직접

적으로 이야기하게 된다. 유배 생활의 고충은 단순히 힘들고 괴로운 심정적인 토로만이 아니라, 어떠한 매개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는지가 매우 구체적이며 현실적으로 나타난다.

일간 초당 홀노 누어 잔병을 일삼으니 긴 히가 다 가도록 문병하리 전여  
업다 엇지타 슝이 이다지 적막 (신39, 풍대212)

미만 삼십 이년몸이 퍽발 업는 노인이라 눈 어둡고 괴운 업고 알느니 병이  
로다 아마도 청춘의 석은 간장 늙기도 먼저 (신47, 풍대188)

위 시조들에서는 병으로 인한 고충이 잘 드러나 있다. 이세보가 병약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서른의 나이였지만 지병이 있어 늘 고생했던 것으로 보이며, 유배 길에서도 병의 악화로 고생했던 일이 『신도일록』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을 정도이다. 시조에서도 자신의 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작품에서 토로하고 있다.

등잔불은 어둡 어둡 장마비는 쥬룩쥬룩 병 든 몸 홀노 누어 썩끼느니 모기  
로다 지금의 각장 장관 다 어되 간고 (신38, 풍대211)

빈딴 베투 네 드르라 쥬리고 병 든 몸이 밤마다 네게 썩겨 한 곳도 성헌  
데 업다 그 중의 파리 모기야 일너 무삼 (신51, 풍대189)

건강하지 않은 몸으로 유배를 온 데다가, 유배 환경도 좋지 못해서 병은 더 심해졌을 것이다. 위 시조들에서는 유배지에서의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등잔불은 어둡어둡하고 비는 내리는데 모기에 뜯기며, 빈대 벼룩, 파리 모기 등으로 인해 병든 몸이 성한 데가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주육을 이것쓰니 염발잇는 중이 되고 세스를 돈망흐니 화식흐는 신선이라  
선도는 흐련이와 불도를 어이 (신41, 풍대265)

아침을 지닌 후의 전녁이 걱정이요 전녁을 지닌 후의 아침이 걱정이라 옛  
지타 슝이 퍽반 일기도 썩을 지나 (신43)

병과 환경만이 아니다. 유배지에서는 하루 하루 먹고 사는 일 자체가 고  
충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신41번에서는 주육을 잇은 지 오래되었음을 밝히  
고 있고, 신43번에서는 아침 저녁 끼니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그대로 표출시키고 있다.

스라 악헌 일리 죽어 지육이라드니 죽지 안는 이 고상이 스라셔 더 어렵다  
아마도 충효득되는 이러헨가 (신46, 풍대187)

턴상의 오작교 잇고 지상의 무슈헌 다리 이다리 저 다리 중의 귀양다리  
나 죽겠다 츠아리 창당의 썩져서 굴원이나 (신53, 풍대191)

위 시조들은 고충의 요인을 특별히 지적하고 있지는 않지만, ‘죽지 안는  
이고상이 스라셔 더 어렵다’, ‘이다리 저 다리중의 귀양다리 나 죽겠다’는  
등, 유배 생활이 죽기보다 못한 고생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올 것이라며  
극한의 괴로움을 드러내고 있다.

유배 문학에서 유배 생활로 인한 고충이 드러나는 것은 조선 후기의 일  
이다. 특히 유배가사의 경우 조선 초기에는 자신의 개인적인 고통이나 심  
회를 드러내기 보다는 오직 임금에 대한 그리움으로 괴로워하면서 자신의  
충성심을 강조하고 자신이 유배 온 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간신배의  
참소에 의한 것임을 부르짚는 작품이 대다수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는 가  
사의 장편화, 사실화가 진행되면서 유배의 여정이 상세히 드러나게 되고  
유배지에서의 견문과 감상이 길어지며, 이와 아울러 유배의 고충까지 드러

내는 작품들이 나타나게 된다. 가사는 사실 자체가 장편화되면서 유배 생활의 이모저모를 상세히 담을 수 있고, 다양한 내용을 기록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시조의 경우에는 체험이나 고충이 사실적으로 드러나기가 쉽지 않다. 고충으로 인한 심정의 발화는 있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고충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기에는 시조의 형식상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 19세기 김이익의 작품을 보아도 그러하고, 다른 유배시조의 경우에도 유배의 고충이 이만큼 적나라하게 표현된 사례는 드물다. 막연한 서글픔이나 고달픔 등 일반화된 감정 토로를 보이는 작품이 대부분이지만, 이세보의 경우처럼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상황의 제시가 일반적이지는 않다. 이세보의 유배시조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유배 생활의 고충은 이세보 유배시조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 할 것이다<sup>19)</sup>.

#### IV. 맺음말

『신도일록』은 이세보가 유배 기간 동안 자신의 유배 생활을 기록한 일기 형식의 글로, 말미에는 시조 95수를 싣고 있다. 본고는 이세보의 유배시조에 주목하면서 먼저 『신도일록』의 서술 방식과 목적을 살피고, 『신도일록』 시조의 양상과 특질을 살펴 보았다. 기존 연구에서는 유배시조를 논함에 있어 유배시조의 범주 확정에도 혼란이 있었는데, 이세보의 유배시조는 일차적으로 『신도일록』 시조(추록된 3수 제외)를 대상으로 해야 함이 마땅하다.

---

19) 이 외에도 『신도일록』 시조에는 부모를 그리워하면서 자신의 불효함을 통탄하는 시조가 상당수 등장한다. 본고에서는 지면의 한계상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못했지만, 사부모시조 역시 이세보 유배시조의 다양한 표출 양상의 하나로는 충분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이세보에 대한 평가는 그가 시조 463수를 지었다는 사실에서 작품 수가 많은 만큼 다양한 소재와 주제가 표출되어 있다는 점<sup>20)</sup>이 가장 먼저 지적될 수 있다. 한편 19세기 사대부 시조 작자로서 그의 시적 경향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도 사실이다. 유배시조에 한해 그의 시조 작품을 평하자면 역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배시조를 창작했었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다. 이세보 유배시조의 내용을 연군과 사친에의 정이고, 유배 생활의 고달픔이며, 해배에의 기원이 전부며. 이는 유배시의 산문 기록인 『신도일록』도 마찬가지<sup>21)</sup>라는 단순한 평가는 재고되어야 한다. 『신도일록』 시조를 대상으로 이세보 유배시조의 내용적 특질을 살피면서 얻어낸 몇 가지 특징을 정리해 보더라도 그의 유배시조가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유배시조와는 비견될 수 없을 만큼 다각적이며, 구체적, 현실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시조라는 짧은 글 속에서 구체적인 실상과 절실함을 함께 담아내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이세보 시조의 경우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느낀 고충을 토대로 자신의 심정과 회포를 토로하고 있다. 그만큼 절실하게 자신의 감정을 담아내는 시조 작자도 드물다 할 것이다. 다만 유배시조에 보이는 그의 시선은 철저히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다. 모든 시작은 나로 인해 시작되었으며, 해결도 나의 해배로 끝이 난다. 나의 그리움과 나의 괴로움이 내 관심사이며, 나와 관계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뿐이다. 자신을 벗어난 사회나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로 그의 시조를 폄하할 생각은 없다. 개인주의적 차원을 벗어

20) 성무경은 『풍아(대)』를 대상으로 422수 전편에 걸쳐 연작적 질서를 보여주었다며 이러한 연작 능력이 나아가 463수라는 다수의 시조를 창작할 수 있었던 다작 능력으로까지 작동했다고 했다. 성무경, 『19세기 축적적 문학담론과 이세보 시조의 작시법』, 『한국시가연구』 27집, 한국시가학회, 2009, p.149.

21) 고은지, 『이세보 시조의 창작 기반과 작품 세계』, 『한국시가연구』 1집, 한국시가학회, 1999, p.381.

나 한껏 기개를 드높인 시조가 없다는 것을 비난하기 보다는, 이 역시 그의 개성적 측면이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겉으로 호방한 척, 사사로운 이익을 버리고 나라를 위하는 척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솔직하게 자신의 아픔과 맞서는 현실적 선택을 한 것이라 본다.

## 【참고문헌】

-자료편

『주석 이세보시조집』, 진동혁 저 정음사 1985.

『이세보시조집(부『신도일록』)』, 단국대학교부설동양학연구소 1985.

고은지, 『이세보 시조의 창작 기반과 작품 세계』, 『한국시가연구』 1집, 한국시가학회, 1999.

김정화, 『유배가사 <북경가> 연구』, 『민족문화논총』 54집,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3.

박길남, 『이세보의 유배시조 연구』, 『한남어문학』 1 7집, 한남어문학회, 1992.

박노준, 『이세보 시조의 ‘분’의식과 정서표출의 두 국면』, 『동양학』 2 0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90.

성무경, 『19세기 축적적 문학담론과 이세보 시조의 작시법』, 『한국시가연구』 7집, 한국시가학회, 2009.

손정인, 『이세보 애정시조의 성격과 작품 이해의 시각』, 『한민족어문학』 59집, 한민족어문학회, 2011.

신연우, 『이세보 시조의 특징과 문학사적 의의』, 『한국문학연구』 3집, 경기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1993.

윤정화, 『이세보 애정시조의 성격과 의미』, 『한국문학논총』 21집, 한국문학회, 1997.

오종각, 『이세보 시조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_\_\_\_\_, 『이세보 시조집의 편찬특징에 관한 재고』, 『단국어문논집』 2집, 단국대학교 인문과학대학 단국어문연구회, 1998.

이재식, 『유배시조 범위재고』, 『겨레어문학』 21·22집,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연구회, 1997.

\_\_\_\_\_, 『유배시조의 범위 고찰』, 『겨레어문학』 19·20집,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연구회, 1995.

정우봉, 『이세보의 국문 유배일기 『薪島日錄』 연구』, 『고전문학연구』 41집, 한국고전문학회, 2012.

정홍모, 『19世紀 士大夫 時調 研究 : 주요 작가의 의식지향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정홍모, 『조선후기 사대부 시조의 세계인식』, 월인, 2001.

진동혁, 『이세보의 유배시조 연구』, 논문집 15, 단국대학교, 1981.

\_\_\_\_\_, 『이세보 시조연구』, 집문당, 1983.

\_\_\_\_\_, 『새로 발굴된 이세보의 시조집 《別風雅》에 대하여』, 『김영배선생회갑기념  
논총』, 김영배선생회갑기념논총간행위원회 편, 1991.

Abstract

A Study on Lee Sebo's Sijo poems of Exile  
Focused on Sijo in 『Sindo Diary(Sindoillok)』

Kim, Jeong-hwa

Lee Sebo left 6 kinds of collection of songs and 1 diary. The number of Sijo poems he composed is 463. Nonetheless, almost no study was carried out on poems of exile. The reason why that there is no study was lack of interest in poems of exile by Lee Sebo and the overlook of his diary 『Sindo Diary(Sindoillok)』.

『Sindo Diary(Sindoillok)』 contains ideas and thoughts of Lee Sebo during his route of exile and period of exile. In the rear part of book, 95 Sijo poems are contained. Accordingly, it needs to focus on Sijo on Lee Sebo's poems of exile contained in 『Sindo Diary(Sindoillok)』 and 『Sindo Diary(Sindoillok)』.

As for the way of description of 『Sindo Diary(Sindoillok)』, it includes record of the date before the arrival of Sinjido with the route of exile, experience, appreciation and feeling complexly. On the other hand, after the arrival of Sinjido, no concern was given to the record of date and main concern was on exposing his feelings.

As for characteristics of 『Sindo Diary(Sindoillok)』 Sijo, firstly, Lee Sebo composed didactic Sijo based on his own experiences. His didactic sijo was not only to others but also lament to himself. Secondly, expression of his feeling on exile is outstanding. Majority of Sijo are only contained in 『Sindo Diary(Sindoillok)』. Thirdly, loyalty Sijo in 『Sindo Diary(Sindoillok)』 expressed loyalty in various routes. Fourthly, it states difficulties in exile plainly, which is very rare in other poems of exile.

In conclusion, Lee Sebo's poems of exile are diverse, specific and realistic unrivalled with other poems of exile.

Key Word : Lee Sebo, sijo of exile, 『Sindo diary(Sindoillok)』, 『Pung A』, the way of description, Characteristics, Category of exile sijo

김정화

소속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전자우편 : kjh827@ynu.ac.kr

이 논문은 2017년 4월 21일 투고되어  
2017년 6월 4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7년 6월 9일 게재 확정됨.